

종합국어심화편 - 문법 '프리미엄'

유대종 편저, 개발

1

(1강-4강)

* 강사 : 유대종

* 약력 : 오르비 인강 강사

분당 명인학원 출강

강북 비타에듀 재수 종합반 출강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1차 합격

< - Memo >

문법 프리미엄 목차

<1C. 품사>

- (0.1) 구분 : 의미, 기능, 변불변
- (0.2) 유대종이 개발한, 우리말 <패턴 3>
 - (1) 명사 : 자립, 의존
 - (2) 대명사 : 관형사와 구분, 인칭, 지시
 - (3) 수사 : 수사, 수 관형사
 - (4) 조사 : 조사의 구분, 이형태
 - (5, 6) 형용사 동사 : 어간과 어미, 동형 구분법, 본보조, 불규칙
 - (7, 8) : 관형사와 형용사-동사 구별 부사의 구분, 부사와 형용사 구별
 - (9) : 감탄사와 독립어 구별
 - (10) 품사 통용
- #. 밑의 일치 차이법

<2C. 문장 성분과 짜임>

- 1. 문장 성분
 - (1) 주어 : 대체 유무, 주격 조사 사용
 - (2) 목적어 : 대체 유무
 - (3) 보어 : 보어의 범주 판단
 - (4) 서술어 : 서술어 자릿수, 필수 성분과 구별
 - (5) 관형어 : 관형어의 범주 판단
 - (6) 부사어 : 부사어의 범주 판단
 - (7) 독립어 : 독립어의 범주 판단
- 2. 문장의 짜임
 - (1) 문장 구분
 - (2) 이어진 문장 - 대등, 종속
 - (3) 안긴 문장 -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
- #. 범주 판단

<3C. 음운>**1. 체계**

- * 구별, 소리
- * 위치, 방식
- * 모음의 구분

2 음운 변동

- * 변동, 변이, 변천
 - * 변동의 분류
 - * 음끝과 단순 연음
 - * 구개음화와 자음 축약
 - * 모음축약과 모음 탈락
 - * 경음화 조건
 - * 구개음화 조건
 - * 교체 VS 첨가
 - * 교체 VS 탈락
 - * 사잇소리와 사이시옷
 - * 모음 발음법
- #. 의도 삽입의 문제

<4C. 형태소>

- (1) 구분법
 - (2)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조사
 - (3) 이형태
- #. 보기 풀이법

<5C. 합성어, 파생어>

- (1) 합파 공부의 전제 : 어근, 어간, 어미, 접사
 - (2) 구분
 - * 단일어, 복합어
 - * 합성어, 파생어
 - *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 합성어
 - * 합성어 구분 체계
 - (3) 기능
 - * 품사TS, 구조TS, 한정TS
- #. 구분 기술들

<6C. 표현>

- (1) 종결법
- (2) 사피

(3) 시제

- (4) 시제, 높임
- (5) 중의, 부정
- (6) 중복

#. 표현에서 드러나는 심리

<7C. 표기, 맞춤법 규정>

- (1) 표기법
- (2) 맞춤법 규정

<8C. 사전 보기>

- (1) 사전 읽는 법
 - (2) 기출을 통한 분석
- #. 작문의 전략

<9C. 어휘>

어휘 문제 해결법

<특강 : B형 대비>

<1C - 1. 품 사(명, 대, 수, 조)>

- (0.1) 구분 : 의미, 기능, 변별변
- (0.2) 우리말 <패턴 3>
 - (1) 명사 : 자립, 의존
- (2) 대명사 : 관형사와 구분, 인칭, 지시
 - (3) 수사 : 수사, 수 관형사
 - (4) 조사 : 조사의 구분
- (5, 6) 형용사 동사 : 어간과 어미, 동형 구분법, 본보조, 불규칙
- (7, 8) : 관형사와 형용사-동사 구별 부사의 구분, 부사와 형용사 구별
- (9) : 감탄사와 독립어 구별
- (10) 품사 통용
- #. 밑의 일치 차이법

<Memo>

<품사 일반>

1.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 >

-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 | 분류(*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
|------|--|
| ① 형태 | 깊다, 모르다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깊이 |
| ② 기능 | 깊다, 모르다 호수, 강, 깊이 누구 가, 의 는, 도 |
| ③ 기능 | 깊다, 모르다, 깊이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
| ④ 의미 |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
| ⑤ 의미 | 깊다 깊이 모르다 호수 강 누구 가 의 는 도 |

<Memo>

< >

5. <보기 1>은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을 읽고 <보기 2>의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시 대상에 따라 지시 대상이 화자인 경우를 1인칭 대명사, 청자인 경우를 2인칭 대명사, 화·청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또한 특정 대상의 지시 여부에 따라 앞서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반복할 때 사용하는 재귀 대명사,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다.

<보기 2>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은 소나무 묘목을 매우 소중히 가꾸셨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장난으로 그것이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아버님께서는 화가 나서 우리 두 중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보셨죠. 동생은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잘못을 모른 척해 주었어요. 동생은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땐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인 때였죠.

- ① ㉠: 재귀 대명사
- ② ㉡: 미지칭 대명사
- ③ ㉢: 1인칭 대명사
- ④ ㉣: 3인칭 대명사
- ⑤ ㉤: 2인칭 대명사

<Memo>

6. < >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용다용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Memo>

7.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학생 서너이 찾아왔어요.
- ② 우리 집 식구는 다섯이다.
- ③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 ④ 우리의 이념 중 첫째는 진리이다.
- ⑤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Memo>

<조사 탐구>

8. 다음은 <보기>를 참고하여,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 보고서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사장님㉠(*이/*가/께서) 신입 사원들㉡(*에/에게) 말씀을 하셨다.
- 신랑과 신부㉢(*이/*가/께서) 동시에 입장하고 있다.
- 학사 일정과 관련해 학생들㉣(*이/*가/께서) 학교㉤(*에/*에게) 질문을 하였다.
- 동생㉥(*이/*가) 우리 집㉦(*에/*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 바로 집㉧(*에/*에서) 공항으로 출발했다.

*는 어법상 잘못되거나 어색한 것.

| 조사의 선택 기준 | |
|-----------------|---|
|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과 ㉠로 보아 조사가 붙을 단어에 대해 존대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
| | ㉢과 ㉣으로 보아 조사가 붙을 단어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② |
| | ㉤, ㉥, ㉦으로 보아 조사가 붙을 단어가 복수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
|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과 ㉢으로 보아 조사가 붙을 단어가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 명사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
| | ㉣과 ㉤으로 보아 조사가 붙을 단어의 문장 속 의미와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⑤ |

<Memo> ★

<조사 일반>

9.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조사이다. <보기>를 통해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동생이 돌아왔다. / 선생님께서 돌아오셨다.
- 오빠가 공부를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오. / 반장마저도 늦게 오다니.
- 언니하고 오빠하고 다 나갔어. / 구두랑 모자랑 샀어.
- 누가 가느냐를 정해야 한다. / 거의 도착했다고 말했다.

- ① 종결 어미 뒤에 결합할 수도 있군.
- ② 조사끼리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는군.
- ③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군.
- ④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도 하는군.
- ⑤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군.

<Memo> ★

< >

10.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06.9)

<보 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Memo>

< -보조사>

11.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너에게만 말해 주는 거야.
이번엔 너만을 믿을게.
 - ㉡ 철수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다.
일단 먹이는 보자구.
오늘따라 몹시도 답군.
 - ㉢ 체육은 좋아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은 편이야.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셨어.
 - ㉣ 특히 메밀꽃은요, 요즘이 가장 예쁘다고 하네요.
조금 더 빨리요, 이리다가 늦겠어요.
 - ㉤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어제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 ① ㉠: 보조사 '만'은 격 조사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군.
- ② ㉡: 조사는 체언이나 용언과는 결합하지만 그 외의 품사와는 결합을 할 수 없군.
- ③ ㉢: 보조사 '은/는', '만'은 '대조'나 '강조'의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이 있군.
- ④ ㉣: '요'가 주어나 부사어 등과 결합하면 듣는 사람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로 쓰이는군.
- ⑤ ㉤: '에서'는 체언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고, 체언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군.

<Memo>

<조사>

12. < >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09.6)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는) 살고 있었습니
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
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썹꾸러기 돼지 한 마
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썹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
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

- ① ㉠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썹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Memo>

<조사 - 보조사>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러무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Memo>

< 조사 구분 >

14.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
|----|--|--------------------------|
| 자료 | • (선생님께) “ <u>아니요</u> ,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 <u>아니</u> , 몰라” |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 | |
|-----|--------------------------------------|
| 의문점 |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



| | | |
|-------|---|---|
| 문제 탐구 | 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람이 묻는 <u>말</u> 에 부정어로 대담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u>말</u> 이다. |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u>말</u> 이다. |
| |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u>뭐 할까요?</u> • <u>뭐 할까?</u> • <u>어서요, 빨리요.</u> ☞ <u>당어</u> , <u>어떻</u> <u>어찌</u>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u>얼마나 기쁘<u>오</u>?</u> • <u>얼마나 기쁘<u>니</u>?</u> • <u>일단 멈추<u>시오</u>.</u> ☞ ㉠ |



| | |
|----|---|
| 적용 | “그러면 안 되 <u>ㅁ</u> .”의 <u>ㅁ</u>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Memo>

6. < >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믿음’ 와 같은 것은?
(2009.9월 모의평가)

< 기 >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④ 오뎅이 ⑤ 탈리기

<Memo>

7. <보기>를 통해 관형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다고 꾸며 주는 말이다. 지시 관형사는 ‘이’, ‘그’, ‘저’, ‘다른’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관형사이며, 수 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ㄱ. 이 두 사람이 했다는 거냐?
ㄴ. 이 애가 아니라 저 애의 것이다.
ㄷ. 그는 모(某) 지역으로 이송 되었다.
ㄹ. 여러 나라의 다른 분들도 다 이 일에 동의했다.
ㅁ. 이것이 그것과 다른 물건이라니 이는 실로 놀랍다.

- ① ㄱ으로 볼 때 지시 관형사가 수 관형사에 앞서서 문장에 배치 되는군.
② ㄴ의 ‘이’는 ‘저’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군.
③ ㄷ의 ‘모(某)’는 ‘지역’을 수식하므로 지시 관형사라 할 수 있겠 군.
④ ㄹ의 ‘다른’은 ㅁ의 ‘다른’과는 달리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지칭하므로 관형사라 할 수 있겠어.
⑤ ㄹ, ㅁ의 ‘이’는 수식의 기능이 없으므로 둘 모두 관형사가 아니군.
⑥ ㄹ의 ‘여러’는 ㅁ의 ‘다른’과는 달리 수 관형사로서 기능하고 있군.

<Memo>

1) : 체언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말.
① 성상 관형사 : 체언이 가리키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어떠한’의 방식으로 꾸며 줌. ㉠ 새 옷, 순(純) 우리말
② 지시 관형사 : 지시성을 띤. ㉡ 이 운동, 조 아이, 다른(他) 분, 전(前) 총리
③ 수 관형사 : 뒤에 오는 명사의 수량을 표시함.
 ㉢ 세 사람, 전(全) 생애, 모든 학생, 여러 나라

<관형사와 형용사의 구분>

8.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에 쓰인 ‘다른’의 품사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 >

• 다른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는 판

• 다르다 「형용사」 [달라, 다르니]
 【…과(와)】 《 ‘…과(와)’ 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기>

- ㉠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 그녀의 외모가 평소와 다른 탓에 깜짝 놀랐다.
㉣ 늦게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 쌍둥이들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자라난다.

| | 관형사 | 형용사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Memo>

< >

9.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 ㉠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 ① 연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② 세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③ 서진: 나는 눈발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 ④ 정연: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한다.
- ⑤ 은우: 나는 배가 아파 이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Memo>

* :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말.

① 성분 부사

(㉠) 성상(性狀) 부사 : ‘어떻게’의 방식으로 꾸며주는 부사. 상경부사(의태부사, 의성 부사) 를 포함한다.

㉡ 너무, 자주, 매우, 몹시, 아주, 철썩철썩, 데굴데굴

(㉢) 지시 부사 : 방향, 거리, 시간, 처소 등을 지시하는 부사.

㉠ 이리 오너라, 내일 만나자, 그리 말고

(㉣) 부정 부사 :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

㉠ 못 간다, 안 보았다, 잘못 잡았다

② 문장 부사

(㉠) 양태 부사 : 말하는 이의 마음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문장 첫머리에 올.

㉠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과연, 다행히, 제발

(㉢) 접속 부사 : 앞뒤 문장을 이어 주면서 뒷말을 꾸며 주는 부사.

‘이나/나, 과/와’같은 접속 조사와 기능상 구별이 어렵다.

㉠ 그리고, 즉, 및, 또는, 내지

③ 파생 부사 : 부사가 아닌 것에 부사 파생 접미사를 붙여 만든 부사. ㉠ 깨끗 + 이, 넉넉 + 히

10. 밑줄 친 부사 중 문장 전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것은?

- ① 엄마는 글씨를 빨리 쓴다.
- ② 이곳은 수심이 매우 깊다.
- ③ 올해는 눈이 참 많이 내린다.
- ④ 일요일인데도 일찍 일어났구나.
- ⑤ 그 사람은 그 일을 과연 할 것인가?

<감탄사>

11.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기>

- 아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뽀, 명인 된다고?
 아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쎄, 사 줘야 되냐?
 아들: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들: 그런데, ㉤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들: ㉦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Memo>

< 통용 >

12.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뿔 수 있다.
-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게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좁쌀이 두 가마니였다.
- ⑤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벌써 날이 밝는다.

<Memo>

12. 5 < 1 >을 읽고 <보기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1

,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 통용'이라고 한다.

보기 2

- [가] ㄱ. 아픈데 가만 누워 있어라.
 ㄴ. 가만, 저게 무슨 소리지?
- [나] ㄱ.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는다.
 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 [다] ㄱ. 먼저의 일은 내가 이해해라.
 ㄴ. 씻기 전에 밥 먼저 먹어라.
- [라] ㄱ. 그는 덩치만 크지 겁이 많다.
 ㄴ. 견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 [마] ㄱ.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ㄴ.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① [가] : ㄱ의 '가만'은 부사이고, ㄴ의 '가만'은 감탄사이다.
- ② [나] : ㄱ의 '만큼'은 조사이고, ㄴ의 '만큼'은 명사이다.

- ③ [다] : ㄱ의 '먼저'는 명사이고, ㄴ의 '먼저'는 부사이다.
- ④ [라] : ㄱ의 '크지'는 형용사이고, ㄴ의 '크지'는 동사이다.
- ⑤ [마] : ㄱ의 '열'은 관형사이고, ㄴ의 '열'은 수사이다.

<Memo>

1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수특)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띄어쓰기의 하위 조항>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 ① ㉠: '눈물'은 '눈'과 '물'로 이루어졌지만 한 단어인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② ㉡: '서울에서조차도'의 '에서', '조차', '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④ ㉣: '자동차 한 대'의 '대'는 단위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 ⑤ ㉤: '베어 물다'의 '물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베어물다'로 붙여 쓸 수 있다.

<Memo>

< 띄어쓰기 >

14.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투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Memo>

(5강-8강)

<2C. 문장 성분과 짜임>

1. 문장 성분

- (1) 주어 : 대체 유무, 주격 조사 사용
 - (2) 목적어 : 대체 유무
 - (3) 보어 : 보어의 범주 판단
 - (4) 서술어 : 서술어 자릿수, 필수 성분과 구별
 - (5) 관형어 : 관형어의 범주 판단
 - (6) 부사어 : 부사어의 범주 판단
 - (7) 독립어 : 독립어의 범주 판단
- ### 2. 문장의 짜임
- (1) 문장 구분
 - (2) 이어진 문장 - 대등, 종속
- (3) 안긴 문장 -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
#. 범주 판단

<실전 개념 메모>

<2C - 1. 문장 성분과 짜임>

< >

1.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ㄱ. 새가 날아간다.
 ㄴ. 어디 갔니, 영희는?
 ㄷ.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ㄹ.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ㅁ.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 ① 'ㄱ'과 'ㄷ'의 보면,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
- ② 'ㄱ'과 'ㄷ'을 보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의 의미와 관계가 있어.
- ③ 'ㄱ'과 'ㄹ'을 보면,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
- ④ 'ㄴ'과 'ㄷ'을 보면, 주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있어.
- ⑤ 'ㄷ'과 'ㄹ'을 보면,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

<Memo>

<목적어>

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격조사가 보조사로 대체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군.
- ⑤ ㉢과 ㉣을 보니, 목적격 조사는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지의 유무와 관련이 있군.

<Memo >

<서술어 자릿수 - 2015 수능B>

4. < >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

않은 것은?

< 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Memo >

< 자릿수 >

5. 다음과 같은 문법 수업에서 ㄱ~ㅁ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답니다. 그럼, 다음 문장들에 쓰인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아봅시다.

ㄱ. 물이 얼음이 되었다.
 ㄴ. 우정은 보석과 같다.
 ㄷ. 누나가 새 책을 샀다.
 ㄹ. 동수가 교가를 부른다.
 ㅁ. 민수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 ① ㄱ의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의 서술어 '같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의 서술어 '샀다'는 주어와 관형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의 서술어 '부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의 서술어 '붙였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Memo >

<문장 성분 >

6.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주어가 명확하므로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할 필요는 없겠어.

<Memo >

< >

7. <보기 1>을 통해 <보기 2>처럼 관형어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보기 1>

ㄱ. 그는 새 옷을 입었다.
 ㄴ. 그녀는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ㄷ. 의회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

<보기 2>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항상 생략할 수 있다.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 앞과 뒤의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 앞의 체언은 관형격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③ ㄱ,㉢,㉣ ④ ㄴ,㉢,㉣ ⑤ ㉢,㉣,㉤

<Memo>

<부사어>

8.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 격 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ㄱ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ㄴ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② ㄱ 인공위성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ㄴ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③ ㄱ 그들은 물동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ㄴ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④ ㄱ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ㄴ 나는 오후에 할머니 택을 방문했습니다.
 ⑤ ㄱ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ㄴ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Memo>

<부사어>

8.5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말은 부사어이다. 이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녀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 내가 친 공은 매우 멀리 날아갔다.
 ㉢ 모두가 떠나가고 오직 너만 남았다.
 ㉣ 부부는 아이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 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앞 건물에서 합니다.

- ① ㉠을 보니 부사에 보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실현되기도 하는군.
 ② ㉡을 보니 부사어가 또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기도 하는군.
 ③ ㉢을 보니 부사어는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아도 서술어를 꾸밀 수 있군.
 ④ ㉣을 보니 부사어 중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도 있군.
 ⑤ ㉤을 보니 부사어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네.

<Memo>

< 성분 일반 >

9. < >를 참고하여,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무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 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나는 무척 기뻐다.
 ㉡ 그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 김 대리,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 젊은이여, 드높은 이상을 가졌는가?
 ㉤ 설마 그녀가 너에게 돈만 주었니?

- ① ㉠~㉣을 보니 문장이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군.
- ② ㉠과 ㉣을 보니 부사어는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것과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이 있군.
- ③ ㉡과 달리 ㉣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지만, 문장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군.
- ④ ㉣과 달리 ㉢의 독립어는 독립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군.
- ⑤ ㉣과 달리 ㉡은 관형어를 생략할 경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Memo>

<독립어>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영수: ㉠철수야, 너 ㉡새 구두 샀어?
 철수: ㉢아니, ㉣산 것이 아니라, 영희에게 선물로 받은 거야.
 영수: 정말 ㉤멋진 구두네.
 철수: 칭찬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영희에게 구두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
 영수: 다음 주 ㉦희철이의 결혼식 갈 때, 그걸 신고 가면 되겠다.
 철수: 좋은 생각인데? 저번에 산 정장과 잘 어울리겠다.

10.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사는 모두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③ 글에서 이 문장 성분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다.
- ④ 체언에 호격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 ⑤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11. ㉡~㉣ 중,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Memo>

<2C - 2. 문장 성분과 짜임>

< >
1. 다음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새 책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① 관형사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안긴문장(절):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홑문장
① 관형절: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절), 이때 관형절은 ‘-(으)ㄴ’, ‘-는’,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함.
예 ‘무소유’는 내가 읽었던 책이다.

<보기>
ㄱ. 지역이든 **유명한** 관광지는 있기 마련이다.
ㄴ. **내가 산** 꽃을 **그녀의** 화단에 옮겨 심었다.
ㄷ. 나는 **동전 다섯** 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① ㄱ의 ‘유명한’은 명사 ‘관광지’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② ㄴ의 ‘그녀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명사 ‘화단’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③ ㄴ의 ‘산’은 ‘사다’의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내가 산’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ㄷ의 ‘다섯’은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므로,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ㄱ의 ‘어느’와 ㄷ의 ‘그’는 모두,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자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Memo>

<관형절>

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관형절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보기>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은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 속의 체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그러나 동격 관형절은 안긴문장과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a.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 +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를 사랑한다.
b. ‘그가 범인이다.’ + ‘나는 확신이 없다.’
→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다.
a는 안긴문장에 두 문장의 공통 성분인 ‘그녀’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 b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 따라서 a는 관계 관형절, b는 동격 관형절이라 판단할 수 있다.

- ①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
- ②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 ③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 ④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
- ⑤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Memo>

< - 2014수능A>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Memo>

<문장의 종류 - 안은 문장, 안긴 문장 - 2015수능A>

4.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Memo>

<안긴 문장, 안은 문장>

5.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ㄴ’, ‘-기’, 관형절은 ‘-(으)ㄴ’,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용례 | 설명 |
|--------------------------------|--|
| ○ 코끼리는 <u>코가 길다</u> . | ⇒ ‘코끼리는’이라는 주어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① |
| ○ 친구가 <u>소리도 없이</u> 내 뒤로 다가왔다. | ⇒ ‘다가왔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② |
| ○ 지금은 <u>학교에 가기에</u> 늦은 시간이다. |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③ |
| ○ 오늘 <u>급식을 일찍</u> 먹기는 힘들겠다. |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④ |
| ○ 현재는 <u>자기가 옳다고</u> 주장했다. | ⇒ ‘현재’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⑤ |

<Memo>

6.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Memo>

<문장의 종류>

7. <보기>의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 '결문장'이 있다. 결문장에는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전자는 홀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홀문장과 홀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① 가을이 오면 곡식이 익는다.
- ② 함박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③ 우리는 어제 학교로 돌아왔다.
- ④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Memo>

8. <보기>의 ㉠, ㉡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저곳이 우리가 입학할 대학이다.

주어+ 주어+서술어 +서술어
A

㉡ 나는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주어+ a 주어+서술어 + b 주어+서술어 +서술어
B

- ① ㉠의 A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②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③ ㉡의 a와 b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④ ㉡의 b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의 A와 ㉡의 B는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Memo>

<3C. 음운>

1. 체계

- * 구별, 소리
- * 위치, 방식
- * 모음의 구분

2 음운 변동

- * 변동, 변이, 변천
- * 변동의 분류
- * 음끝과 단순 연음
- * 구개음화와 자음 축약
- * 모음축약과 모음 탈락
 - * 경음화 조건
 - * 구개음화 조건
 - * 교체 VS 첨가
 - * 교체 VS 탈락
- * 사잇소리와 사이시옷
 - * 모음 발음법
- #. 의도 삽입의 문제

<실전 개념 메모>

1. <보기>의 표를 참조할 때 음운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후설모음 | |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ㅣ | ㄱ | ㅡ | ㅓ |
| 중모음 | ㅔ | ㅕ | ㅖ | ㅗ |
| 저모음 | ㅐ | | ㅑ | |

- ① ‘삼촌’을 ‘삼춘’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것, ‘부조’를 ‘부주’로 잘못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면, 입술을 오므리는 정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 ②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한다는 현상은, 후설 모음과 전설 모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발음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 ③ ‘괜찮아’를 ‘괜찮어’로 잘못 발음한다면, 그것은 저모음을 중모음으로 잘못 발음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④ ‘아지랑이’를 ‘아지랭이’로, ‘홀아비’를 ‘홀애비’로, ‘창피하다’를 ‘챙피하다’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역행 동화에 속한다.
- ⑤ ‘어른’을 ‘으른’으로 ‘거지’를 ‘그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중모음을 고모음으로 잘못 발음하여 생겨나는 현상이다.

<Memo>

< >

2. 다음은 비음화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결론의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문 비음화는 자음 동화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자음의 어떤 점이 같게 되는 걸까?



● 비음화의 사례
국물[궁물] ㄱ+ㅍ → ㅇ+ㅍ
만며느리[만머느리] ㄷ+ㅍ → ㄴ+ㅍ
입는다[임는다] ㅂ+ㄴ → ㅁ+ㄴ

※ 참고자료: 국어의 자음 체계

| 조음 방법 | 위치 | | 윗잇몸, 혀끝 | 센입천장, 혀바닥 | 여린입천장, 혀 뒤 | 목청 사이 |
|-------|-------|----|---------|-----------|------------|-------|
| | 예사 소리 | 입술 | | | | |
| 열음 | 예사 소리 | ㅂ | ㅃ | | ㄱ | |
| | 된소리 | ㅃ | ㅆ | | ㄲ | |
| 과찰음 | 예사 소리 | | | ㅈ | | |
| | 된소리 | | | ㅉ | | |
| 마찰음 | 예사 소리 | | ㅅ | | | ㅎ |
| | 된소리 | | ㅆ | | | |
| 비음 | | ㅁ | ㄴ | | ㅇ | |
| 유음 | | | ㄹ | | | |



결론 국어의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비음화의 사례를 탐구한 결과, ‘ㄱ, ㄷ, ㅂ’은 ‘ㄴ, ㄹ’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뀌는데, 이는 ㉠은(는) ‘ㄴ, ㄹ’과 같아진 것이지만, ㉡은(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 ㉠ ㉡
- 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② 조음 위치 조음 방법
③ 조음 위치 소리의 세기
④ 소리의 세기 조음 위치
⑤ 소리의 세기 울림소리 여부

<Memo>

<음운과 음절의 개념>

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해 설명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Memo>

<음운 변동 일반>

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급행열차[그팽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Memo>

4.5 < 1>을 참고하여 <보기 2> ㉠~㉣의 발음을 올바르게 짝 지은 것은?

< 1>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2>

-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 왔다.
- 강아지가 부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 새로 이사한 집은 부엌이[㉢] 넓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 | | | |
|--------|-----|-----|
| ㉠ | ㉡ | ㉢ |
| ① 부어께서 | 부어칸 | 부어키 |
| ② 부어께서 | 부어칸 | 부어기 |
| ③ 부어께서 | 부어간 | 부어키 |
| ④ 부어께서 | 부어간 | 부어기 |
| ⑤ 부어께서 | 부어간 | 부어키 |

<Memo>

<음운의 변동 중 교체>

5.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먹는’ 은 ‘[명는]’ 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 이 뒤에 오는 음운 ‘ㄴ’ 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력되는 음운을 a, 출력되는 음운을 b, 환경을 X와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aY → XbY

먹는 [명는]

이때 a는 Y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팔을’ → [파틀]의 ‘ㄷ’
- ② ‘공물’ → [공물]의 ‘ㄱ’
- ③ ‘권력’ → [퀀력]의 ‘ㄴ’
- ④ ‘같이’ → [가치]의 ‘ㄷ’
- ⑤ ‘잡고’ → [잡꼬]의 ‘ㄱ’

<Memo>

<음운의 변동 중 교체 - 음끝, 연음>

5.5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주어진 단어의 발음을 적은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부엌 안[부어칸]
- ② 밭 아래[바다래]
- ③ 꽃 안[꼬단]
- ④ 젓어미[저더미]
- ⑤ 늪 앞[느밥]

<Memo>

<음운 변동 일반>

5.7. <보기>를 바탕으로 수업 중 올바른 발음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ㅌ)’ 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 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닫이[미다지]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ㅎ), ㅂ(ㅍ, ㅃ, ㅍ, ㅍ)’ 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단는[단는] 밥물[밤물]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ㅣ, 야, 여, 요, 유’ 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녀,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문 제: ‘밭이랑 눈에 물을 줘 주어야 겠어요.’ 에서 ‘밭이랑’ 의 올바른 발음은?
 탐구 내용: 위 문제의 ‘밭이랑’ 은 표준 발음법 (A)이 적용되어 (B)으로 발음되는 군.

| | A | B |
|---|-----------------|-----|
| ① | 8항, 제17항 | 바치랑 |
| ② | 제8항, 제18항 | 밭이랑 |
| ③ | 제8항, 제29항 | 반니랑 |
| ④ | 제17항 | 바치랑 |
| ⑤ | 제8항, 제18항, 제29항 | 반니랑 |

<Memo>

6. 음운 변동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 축약 - 별이[벼치]
- ② 자음 동화 - 학문[항문]
- ③ 음운 축약 - 국화[구과]
- ④ 음운 축약 - 남기어[남겨]
- ⑤ 자음 탈락 - 닭[닥]

<Memo>

7. <보기>의 발음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선생님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기>

- ㉠ ‘봉투에 유표를 붙인다.’ 에서 ‘붙인다’ 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 ㉡ ‘기억에서 잊히다.’ 에서 ‘잊히다’ 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이 맞나요?
- ㉢ ‘같이’ 는 [가티]로 발음하나요? [가치]로 발음하나요?
- ㉣ ‘밭이랑에 씨를 뿌리다.’ 와 ‘밭이랑 눈은 우리 땅이다.’ 의 ‘밭이랑’ 은 왜 발음이 다른가요?
- ㉤ ‘밭을 갈다.’ 의 ‘밭을’ 은 [바틀]인데, ‘밭이 넓다.’ 의 ‘밭이’ 는 [바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설명>

받침 ‘ㄷ, ㅌ’ 이 모음 ‘ㅣ’ 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센입천장소리(구개음) ‘ㅈ, ㅊ’ 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음 ‘ㅣ’ 는 조사나 접미사에서 쓰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받침 ‘ㄷ, ㅌ’ 이 모음 ‘ㅣ’ 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Memo>

8.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변동의 한 예로 ㉠음운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의 경우는 ‘ㄱ, ㄷ, ㅂ, ㅈ’과 ‘ㅇ’이 만나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된다. 모음 축약의 경우 모음 ‘ㅣ’ 나 ‘ㅛ/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게 된다.

- ① 그가 꿈쩍도 않던 돌을 움직이자 모두 놀랐다.
- ②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 ③ 기차 출발 시간에 잘 맞춰 나오니까 매우 편했다.
- ④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 줄 수 있겠지?
- ⑤ 오랜만에 친구들이 빠짐없이 와서 매우 즐거웠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가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닭고’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축약과 탈락 현상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 ② ‘할고’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탈락 및 평음이 경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 ③ ‘밖’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삶’에서는 음운의 교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 ④ ‘와서’·‘답가도’는 ‘오아서’ 및 ‘답그아도’의 일부 음운이 탈락된 것이다.
- ⑤ ‘낱고’의 실제 발음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낱아’ 및 ‘낱는’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발생하였다.

<Memo>

<경음화 조건>

10. 다음 된소리되기에 관한 질문과 관련 표준 발음법 규정을 연결한 것이다. 연결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 | | 관련 규정 |
|---|---|--|
| ① | ‘ (平等)[평등]’의 ‘등’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갈등(葛藤)[갈뚱]’의 ‘등’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 →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② | ‘여덟과[여덜과]’의 ‘과’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넓게[널께]’의 ‘게’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 → 어간 받침 ‘래,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③ | ‘개미집[개:미집]’의 ‘집’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엽집[엽쩍]’의 ‘집’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ㄹ), ㄷ(ㄷ, ㅌ, ㅍ, ㅊ,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④ | ‘된밥[된:밥]’의 ‘밥’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아침밥[아침뺨]’의 ‘밥’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
| ⑤ | ‘사기(士氣)[사:기]’의 ‘기’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인기(人氣)[인끼]’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Memo>

< 음운 연구 - 2014A수능 >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형]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

<Memo>

<음운변동 일반>

12. 다음 ㄱ~ㄹ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꽃[꼰], 앞[압]
- ㄴ. 맨입[맨닙], 담요[담 : 뇨]
- ㄷ. 안다[안 : 따], 탁구[탁꾸]
- ㄹ. 낱다[나 : 타], 오+아서→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훈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엎다→[엎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Memo>

<자음군 관련 - 자음군 단순화, 축약, 경음화, 비음화 가능>

13. 다음은 겹받침 ‘ㄹ’과 ‘ㄷ’의 발음에 관해 영미가 필기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의 공책]

| | |
|-----|---|
| 대원칙 |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 뒹다[닥따], 앓다[안따], 있다[인따], 외곶[외곶], 젊다[점따], 값[갑], 강[강] |
|-----|---|

| | | |
|------|--|--|
| 기본원칙 | 겹받침 ‘ㄹ’ (㉡) ㉢ 여덫[여덫], 넓다[널따], 넙고[넙꼬] | 겹받침 ‘ㄷ’ (㉢) ㉣ 읽다[익따], 맑기[막찌], 흙[흑], 흙과[흑과] |
|------|--|--|

| | | |
|----|--|--|
| 예외 | ‘뺨-’의 경우 (㉣) ㉣ 뺨고[뺨꼬], 뺨지[뺨찌] | 용언어간의 겹받침 ‘ㄷ’ (㉣) ㉣ 읽고[일꼬], 맑기[말끼], 뚫고[뚫꼬] |
| | ‘넓-’의 경우 ㉣ 넓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뚱글다] | |

- ①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 ②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 ③ ㉢: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
- ④ ㉣: 특정 모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
- ⑤ ㉣: 어간ㄱ은 어미 ㄱ앞에서 [ㄹ]로 발음

<Memo>

1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피]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Memo>

(9강-11강)

<4C. 형태소>

(1) 구분법

(2)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조사

(3) 이형태

#. 보기 풀이법

< 개념 메모 >

<4C - 형태소>

<형태소의 분류>

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자립성 유무와 의미의 실질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자립성 유무 ─ 자립 형태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 의미의 실질성 유무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 상태, 동작 등을 나타내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보기 2>

ㄱ.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ㄴ. 하늘이 참 푸르구나.

- ① ㄱ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나, 는, 오늘, 도, 책, 을, 읽-, -었-, -다'가 되겠군.
- ② ㄱ에서 '나, 오늘, 책'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겠군.
- ③ ㄴ은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개수가 동일하겠군.
- ④ ㄱ의 '읽-'과 ㄴ의 '푸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이겠군.
- ⑤ ㄱ의 '는, 도, 을'과 ㄴ의 '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이겠군.

<MEMO>

2. < >의 ㉠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 >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그 특성에 따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소식을 전해 준다.
 ○+○+☆
-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덮었다.
 ◇+○+☆
- 범죄자, 한 달 만에 경찰에게 잡히다.
 ○+◇+☆
-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다.
 ○+◇+☆

_____ ㉠ _____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MEMO>

3.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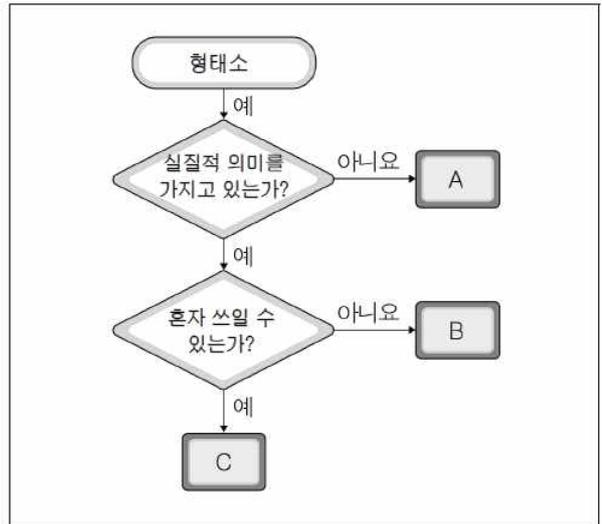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 가운데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고,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다. 즉, ㉠'자립 형태소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 ① 가을바람의 할아버지의 모자를 훔쳐 가 버렸다.
- ②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불평 없이 자라고 있다.
- ③ 누나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 ④ 간밤의 폭설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물들어 버렸다.
- ⑤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밤길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MEMO>

<형태소의 분류>

4.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 ~ ㉢을 분류하고자 한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복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복두칠성을 흔히 국자 ㉢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4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탐구 학습이다. (가)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이를 바르게 짚지은 것은?

| | |
|-------|--|
| 문제 제기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 보자. [예문] 하늘이 푸르다. |
| 탐구 과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실질적 의미가 있는가?</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예</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하늘', '푸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top: 5px;">실질 형태소</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아니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이', '-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8px; margin-top: 5px;">형식 형태소</div> </div> </div> </div> |
| 탐구 결과 | '하늘'과 '푸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이', '-다'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므로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
| 연습 문제 | (가) 형은 집에 있다. |

|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
| ① | 형, 집 | 은, 예, 있-, -다 |
| ② | 집, 있- | 형, 은, 예, -다 |
| ③ | 형, 집, 있- | 은, 예, -다 |
| ④ | 형, 집, 은 | 예, 있-, -다 |
| ⑤ | 은, 있-, -다 | 형, 집, 예 |

<MEMO>

6.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사과를 먹는다'는 '사과', '를', '먹-', '-는-', '-다'의 다섯 개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형태소 중에는 '사과'처럼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를', '먹-', '-는-', '-다'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후자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 하늘에 별이 많다..... [A]

- ① '하늘에'는 세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 ② '별이'는 자립 형태소만으로 구성되었다.
- ③ '많다'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 ④ '에'와 '이'는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
- ⑤ '별이 많다'에는 세 개의 의존 형태소가 있다.

<MEMO>

<이형태>

7. 밑줄 친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ㄱ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ㄱ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ㄱ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ㄱ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ㄱ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MEMO>

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식 형태소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그중 음운론적 이형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 ‘이’와 ‘가’는 동일한 문법 형태소로서 기능을 하지만, ‘이’는 앞 음운이 자음일 경우에, ‘가’는 앞 음운이 모음일 경우에 나타난다. 또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특정한 어간 뒤에서만 교체가 실행되는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에서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는 ‘-거라’가 붙고,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는 ‘-너라’가 붙는데, 이러한 어미의 쓰임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형태론적 이형태의 특성을 보여 준다.

- <보기 2>
- ㉠ 시간을 내어 숙제를 하였다.
 - ㉡ 월급을 받아 형에게 주었다.
 - ㉢ 나는 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 ㉣ 은숙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었다.

| | |
|------------------------|----------------------------|
| 이형태 관계 | ㉠의 ‘-어’와 ㉡의 ‘-아’ ① |
| | ㉢의 ‘는’과 ㉣의 ‘은’ ② |
| | ㉢의 ‘을’과 ㉣의 ‘를’ ③ |
|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 | ㉠의 ‘-었-’과 ㉡의 ‘-었-’ ④ |
| | ㉢의 ‘-았-’과 ㉣의 ‘-었-’ ⑤ |

<MEMO>

- <5C. 합성어, 파생어>**
- (1) **합파 공부의 전제 : 어근, 어간, 어미, 접사**
 - (2) **구분**
 - *단일어, 복합어
 - *합성어, 파생어
 -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 합성어
 - *합성어 구분 체계
 - (3) **기능**
 - * 품사TS, 구조TS, 한정TS
 - #. **구분 기술들**

< 개념 메모 >

(복합어 간 구분법 - 2014B)

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MEMO>

(단어의 짜임 분류 체계)

2. 다음 (가), (나)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 어깨동무, 피땀, 오르내리다
- (나) 구경꾼, 새파랗다, 짓누르다

- ① (가)는 단일어이지만, (나)는 복합어이다.
- ② (가)는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③ (가)는 어근들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나)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가)는 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어이고, (나)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⑤ (가)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MEMO>

(단어의 짜임 분류 체계)

3. 다음의 (가)~(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오늘은 하늘이 참 맑다.
- (나) 나는 군소리 없이 그 일을 하였다.
- (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 (라)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 ① (가)의 '하늘'은 (나), (다)의 '군소리', '먹이'와 달리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② (나)의 '군소리'의 '군-'은 '군말', '군살'의 '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나)의 '군소리'와 (라)의 '책가방'은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복합어이다.
- ④ (다)의 '먹이'의 '-이'는 (나)의 '군소리'의 '군-'과 달리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⑤ (라)의 '책가방'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것으로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에 부합한다.

<MEMO>

(단어의 짜임+사전 결합)

4. 전자[CD-ROM] 국어 사전을 사용하여 ㉠,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보기>의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2점]

<보>

1단계: '거리'가 들어가는

*거리 → 국거리
㉠갈거리
김장거리
땀거리
떼거리
떡을거리
㉡불거리
해거리
⋮

2단계: 표제어 '거리' 찾기

거리¹ ㉠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니는 길.
거리² ㉡ ㉠ 내용이 될 만한 재료.
㉢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거리³ ㉣의 탈출음이나 연극 등에서 정(場)을 세는 단위.
거리(距離)⁴ ㉤ 두 물건이나 장소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
-거리⁵ ㉥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거리⁶ ㉦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

- ① ㉠의 '거리'는 거리¹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은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거리'는 '국거리, 김장거리, 땀거리, 떡을거리'와 같이 거리² ㉠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다.
- ③ '떼거리'는 '무리'를 뜻하는 '떼'에 -거리³가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④ '과실이 해거리로 열린다.'의 '해거리'는 '해'에 거리² ㉠이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⑤ 1단계에서 검색된 단어는 단일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MEMO>
* 시간 거리의 일

(파생, 합성 구조)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구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찜질’은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먼저 ‘찌-’에 ‘-ㅁ’이 붙어 ‘찜’이 되고, ‘찜’이 다시 ‘-질’과 결합하여 ‘찜질’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곧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인 것이다. ‘찜질’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세 형태소는 계층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결합에는 친소(親疎)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찜질’은 ‘찜’에 ‘-질’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 ①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잠귀가 밝은 편이다.
- ②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욕심꾸러기이다.
- ③ 그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물음표를 쓰지 않는다.
- ④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볶음밥을 먹었다.
- ⑤ 그 싸움쟁이는 새벽녘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

<MEMO>

(접두파생, 접미파생)

6.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발견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한 것은?

|조건|
•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
• 접미 파생어에 접두사가 결합된 것

- ① 꽃사랑 ② 아침밥 ③ 군소리
- ④ 헛웃음 ⑤ 산울림

<MEMO>

(파생어 + 품사 구분)

7. < >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믿음’와 같은 것은? (2009.9월 모의평가)

<보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 ④ 오뎅이 ⑤ 달리기

<MEMO>

(접사 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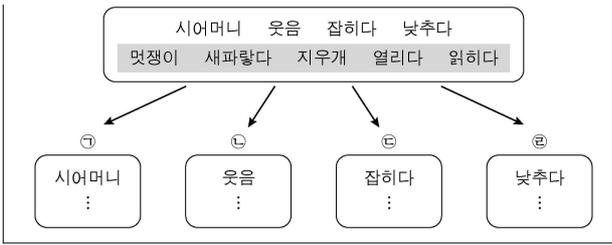
8.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9)

<보기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보기2>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MEMO>

(접사의 표기)

9.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한 탐구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원형을 밝혀 적음
 . 어간에 '-이' 나 '-음/-ㅁ'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ㄴ. 어간에 '-이' 나 '-히' 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II.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ㄱ. 어간에 '-이' 나 '-음' 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
 ㄴ. 어간에 '-이' 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명사, 부사, 조사)로 바뀐 것.

- ① '길-'에 '-이'가 붙은 '길이'는 I의 ㄱ에 해당하겠군.
- ② '익-'에 '-히'가 붙은 '익히'는 I의 ㄴ에 해당하겠군.
- ③ '알-'에 '-ㅁ'이 붙은 '알'은 II의 ㄱ에 해당하겠군.
- ④ '잡-'에 '-우'가 붙은 '잡우'는 II의 ㄴ에 해당하겠군.
- ⑤ '붙-'에 '-어'가 붙은 '부터'는 II의 ㄴ에 해당하겠군.

<MEMO>

(접두사의 의미 파악)

10.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접사'의 성격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접사는 이전의 단어가 갖는 의미에 세기나 정도가 강화된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 특정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① 드넓은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 ②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연필을 되찾아서 참 기뻐.
- ③ 야구공에 맞아 얼굴이 신포령계 피멍이 들었어.
- ④ 내 말을 안 들으면 일 년 내내 들볶아댈 줄 알아.
- ⑤ 그렇게만 하면 소름이 안 풀어지니 훑져어 보아라.

<MEMO>
*

(접사의 성격)

10.5 <보기>는 접두사에 관한 학습자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두사는 단어(어근)의 앞에 붙어 어떤 새로운 뜻을 첨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하는 말을 이른다. 접두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접두사가 붙은 말 | 접두사의 뜻 |
|---|---------------------|---------------------------------|
| ㄱ | 외-, 외마디, 외길, 외따로 |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 '홀로' |
| ㄴ | 들까부르다, 들쭈시다, 들끓다 |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 '심하게' |
| ㄷ | 군말, 군살, 군식구 |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덧붙은' |
| ㄹ | 날고기, 날강도 |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지독한' |
| ㅁ | 헛걸음, 헛수고, 헛디디다, 헛들다 |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보람 없이', '잘못' |

- ① ㄱ의 '외따로'에서 '외-'는 '홀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군.
- ② ㄴ의 '들끓다'에서 '들-'은 '무리하게 힘을 들여'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군.
- ③ ㄷ의 '군식구'에서 '군-'은 '덧붙은'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군.
- ④ ㄹ의 '날고기'에서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군.
- ⑤ ㅁ의 '헛디디다'의 '헛-'은 '잘못'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로군.

<MEMO>

< , 파생어 구분>
 11. < >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05.9)

<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뜻'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덜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뜻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 ④ '알'은 '보다' 앞에 붙어 '알게'의 뜻을 더하면서 '알보다'를 만든다.
- ⑤ '군'은 '밤'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밤'을 만든다.

<MEMO>

(접사와 어미의 구분)
 12. <보기>의 ㄱ과 ㄴ, ㄷ과 ㄹ을 대비하여 추리할 수 있는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 >
 파생 접미사와 어미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ㄱ.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ㄴ. 점심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잤다.
 ㄷ. 태양이 높이 솟아 있다.
 ㄹ.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ㄱ' 과 'ㄷ' 의 파생 접미사인 '-이' 와, 'ㄴ' 과 'ㄹ' 의 어미인 '-고' 를 대비하면 이러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①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파생 접미사는 그렇지 않다.
- ②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 ③ 어미와 결합된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만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그렇지 않다.
- ④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어미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 ⑤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미는 단지 활용형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MEMO>

(접사와 어미의 구분)
 13. <보기>에서 '-음', '-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 , '-기' 는 파생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능과 어떤 한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미 기능이 있다. 이 중 '-음' , '-기' 가 어미 기능을 할 때에는 '-은(는)것' 형태로도 대체될 수 있다.
 ㄱ. 그 짐은 크- 보통이 아니다.
 ㄴ.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서 주면 좋겠다.
 ㄷ.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ㄹ. 나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줄표(-)는 '-음' , '-기' 를 탐구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

- ① ㄱ의 '-기'는 '짐이 크다.'라는 문장을 전체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군.
- ② ㄴ의 '-음'은 동사의 어간 '얼-'에 붙어서 '얼음'이라는 파생 명사가 되게 한 것이군.

- ③ 의 ‘-기’는 ‘그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린다.’에서의 ‘-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르의 ‘-음’은 ‘-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해도 문장의 전체 의미가 바뀌지 않는 군.
- ⑤ ‘-음’, ‘-기’가 ㄱ, ㄴ의 경우에는 접미사로 사용된 것이고, ㄷ, 르의 경우에는 어미로 사용된 것이군.

<MEMO>

<접사 일반>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는데,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

- 군-: 군말, 군침 ㄱ
- 헛-: 헛고생, 헛돌다 ㄴ
- -이: 똥똥이, 딸랑이 ㄷ
- -하다: 공부하다, 반짝반짝하다 르

- ① ㄷ으로 보아, 접미사는 의성어나 의태어 뒤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할 수도 있구나.
- ② ㄱ, ㄴ으로 보아,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 ③ ㄴ, 르로 보아, 어근에 해당하는 말의 품사가 달라도 같은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을 수도 있구나.
- ④ ㄷ, 르로 보아, 접미사는 어근에 해당하는 말의 품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 ⑤ ㄱ, ㄴ, ㄷ, 르로 보아,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붙어서만 사용되고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는구나.

<MEMO>

<접사의 용례>

15. < >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07)

| <보 기> | |
|--|--|
|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용례) ·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못 + -되다 ² → 못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MEMO>

(합성어-통사 비통사)

16. <보기>를 참고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우리말의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각각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으로서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렇듯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한편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 ‘부사+명사’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어미가 개입되어야 하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할

?

- ① ‘ ’는 ‘부사+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덜밥’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집칼’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김볶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스며들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MEMO>

(합성어 - 통사, 비통사)

1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즉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거나,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체언 앞에 관형사가 오는 경우, ㉣용언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맞기 때문에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 ① ㉠: 눈물 ② ㉡: 뛰놀다 ③ ㉢: 온종일
- ④ ㉣: 그만두다 ⑤ ㉤: 뛰어가다

<MEMO>

(합성어 - 통사, 비통사)

18.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된 경우,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지 않고 결합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

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결합하는 어근의 어순이 바뀐 합성어, 동사 어근끼리 결합할 때 연결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등이 있다.

(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병렬 합성어라고 하고, 두 어근 중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또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뛰놀다’는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협조했다.’의 ‘물불’은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 채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병렬 합성어이다.
- ④ ‘돌다리’는 ‘돌’이 의미 관계상 ‘다리’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이다.
- ⑤ ‘그는 사업을 맡아먹었다.’의 ‘맡아먹다’는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MEMO>

19.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된 경우,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지 않고 결합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결합하는 어근의 어순이 바뀐 합성어, 동사 어근끼리 결합할 때 연결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등이 있다.

(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병렬 합성어라고 하고, 두 어근 중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또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

(12강-13강)

<6C. 표현 >
종결, 시제, 높임, 능피주사
중의, 중복

< 개념 메모 >

Part 6. 표현

<종결표현>

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MEMO>

0.5.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06.6)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 ’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대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MEMO>

< 표현 >

1. < >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을 []에 제시된 의미나 상황에 맞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

- < >

 - a. 이것은 아버지 그림이다.[그림에 아버지가 그려져 있음.]
 - b. 내 친구와 그녀가 올해 결혼하였다.[올해 둘이 서로 결혼함.]
 - c.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몇 사람은 오지 않았음.]
 - d. 그가 웃는 것이 이상하다.[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함.]
 - e.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그녀의 표정이 밝음.]

- ① a: ‘-의’를 ‘-가 그림’으로 교체한다.
- ② b: ‘-와’와 ‘-가’를 서로 교체한다.
- ③ c: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 ④ d: ‘것’을 ‘-다는 것’으로 바꾼다.
- ⑤ e: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MEMO>

<중의적 표현>

2. <보기>의 ㄱ~ㅁ은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장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ㄱ. 그는 허리에 총을 차고 있다.
 - ㄴ.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
 - ㄷ. 그녀는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 ㄹ.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ㅁ.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을 생각한다.

- ① ㄱ: 허리에 총을 차는 동작의 ‘진행’인지 이미 찬 ‘상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문장이며, ‘경첩이가 팬티를 입고 있다.’와 유사한 부류의 중의적 문장이다.
- ② ㄴ: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은 문장이다.
- ③ ㄷ: 비교 대상이 ‘그녀’와 ‘나’인지 ‘나’와 ‘영화’인지 불분명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 ④ ㄹ: ‘않았다’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인지 ‘다’인지 ‘오다’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문장이다.
- ⑤ ㅁ: 수식을 받는 대상이 분명하지만 주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모호한 문장이다.

<MEMO>

<중의적 표현>

[3-4] 다음 예문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 ㉡ 남편은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
 - ㉢ 할머니께서 자두와 사과 두 개를 주셨다.
 - ㉣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 그는 웃으면서 마주 오는 이웃에게 인사했다.

3. 위에 제시된 문장들의 의미가 중의성을 띠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않다’가 ‘다 오다’를 부정하는지 ‘오다’만을 부정하는지 불분명하다.
- ② ㉡: ‘남편’과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지 ‘나’와 ‘딸’을 비교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 ③ ㉢: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사과’만인지 ‘자두와 사과’인지 불분명하다.
- ④ ㉣: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미는지 ‘미소’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 ⑤ ㉤: ‘웃으면서’가 ‘그는’의 서술어로 쓰인 것인지 ‘이웃’을 꾸미는 관형절 속에서 쓰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4. ㉠~㉤의 문장을 다듬어 중의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적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 ① ㉠: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 ② ㉡: 나는 남편보다 딸을 좋아한다.
- ③ ㉢: 할머니께서 자두 한 개와 사과 한 개를 주셨다.
- ④ ㉣: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⑤ ㉤: 그는 마주 오는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MEMO>

<중의적 표현>

5. <보기>는 중의적 표현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기 >
- ㄱ. 예쁜 영화의 동생이 다가왔다.
 - ㄴ. 그는 나보다 음악을 더 좋아한다.
 - ㄷ.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ㄹ. 학생들이 학교에 다 오지 않았다.
 - ㅁ. 진우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있다.

- ① ㄱ : 예쁜 사람이 '영화'인지, '영화의 동생'인지 알 수 없다.
- ② ㄴ : 비교 대상이 '그'와 '음악'인지, '나'와 '음악'인지 불분명 하다.
- ③ ㄷ : '보고 싶은'의 주체가 '영수'인지, '친구들'인지 명료하지 않다.
- ④ ㄹ : 학교에 일부의 학생들만 왔는지, 아무도 오지 않았는지 의미가 모호하다.
- ⑤ ㅁ : 바지를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지, 입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MEMO>

< 표현 >

6. <보기> 는 문법 요소와 관련한 중의문의 예이다. ㉠~㉥을 고쳐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학생들이 전부 오지 않았다.
- ㉡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태웠다.
- ㉢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 ㉣ 형이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 ㉤ 포수 둘이 참새 세 마리를 잡았다.

- ① ㉠ → 학생들이 전부는 오지 않았다.
- ② ㉡ →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타게 했다.
- ③ ㉢ → 어떤 사람이 그 시를 좋아합니까?
- ④ ㉣ → 형이 넥타이를 매는 중입니다.
- ⑤ ㉤ → 포수 둘이 각각 참새 세 마리를 잡았다.

-

<MEMO>

<높임 표현>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와 '그러시더라'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MEMO>

<높임 표현 -2014수능B>

8.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⑤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MEMO>

< 표현 >

9. <보기>의 자료를 읽고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말을 듣는 상대에게 문장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종결 방식이다.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이 있다.

ㄱ. 철수가 언제 집에 왔니?
 ㄴ. 사람들은 왜 집에 갔느냐?
 ㄷ. 그 물건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ㄹ. 너한테 장난감 하나 못 사 줄까?
 ㅁ.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① ㄱ과 ㄴ은 ㄴ청자에게 일정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구나.
- ② ㄷ을 보니, 의문사 없이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도 있구나.
- ③ ㄹ을 보니, 의문문 중에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 ④ ㄱ과 ㅁ을 보니, 의문문이 명령이나 감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구나.
- ⑤ ㅁ을 보니, 종결 어미 '요'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MEMO>

<종결 표현>

10.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문'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오늘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ㄴ. 지금 비가 오니?
 ㄷ. 내가 이 상자를 설마 못 들겠느냐?
 ㄹ. 대학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ㅁ.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① ㄱ이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면, ㄴ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 ② ㄷ은 반어적인 기능을 가진 의문문으로 '내가 이 상자를 들 수 있다.'라는 평서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③ ㄹ은 소망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④ ㅁ은 듣는 이에게 '그만두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ㄷ~ㅁ은, ㄱ이나 ㄴ과 달리 듣는 이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MEMO>

<중복 표현>

11. <보기>에서 설명한 언어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자리에 착석(着席)하다.'는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착석(着席)'에 이미 '자리[席]'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다.' 정도로 써도 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흔히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쓸 때에 발생하는데, 굳이 의미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듬어 쓰는 것이 좋다.

㉠ 이 문제에 대해 짧은 소견(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 그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난관(難關)에 부딪혔다.
 ㉢ 그는 남은 여생(餘生)을 여행을 다니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 그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오랜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었다.
 ㉤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미리 답사(踏査)를 다녀왔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MEMO>

< 표현 >

12. < >의 ㉠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동의 중복 표현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뜻의 두 말이 함께 쓰인 것을 가리킨다. 주로 한자어와 고유어 간에서 나타나는데, 대개는 동의 중복된 두 말 중 하나를 생략하여 우리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화자의 표현 의도나 약간의 어감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두 말을 모두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런데 ㉠동의 중복 표현처럼 보이지만 동의 중복 표현이 아닌 경우도 있다. 두 말 중 하나를 생략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려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하다.

- ① '야구공'은 '야구(野球)'의 '구(球)'가 '공'이라는 뜻이므로 동의 중복 표현이다.
- ② '실내 안'은 '실내(室內)'의 '내(內)'가 '안'이라는 뜻이므로 동의 중복 표현이다.
- ③ '초가집'은 '초가(草家)'의 '가(家)'가 '집'이라는 뜻이므로 동의 중복 표현이다.
- ④ '서로 상의하다'는 '상의(相議)'의 '상(相)'이 '서로'라는 뜻이므로 동의 중복 표현이다.
- ⑤ '미리 예상하다'는 '예상(豫想)하다'의 '예(豫)'가 '미리'라는 뜻이므로 동의 중복 표현이다.

<MEMO>

<종결 표현>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 >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밥 좀 먹으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 합시다.

<MEMO>

<종결 표현>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대 : [I]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음.
 [II]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임.
 -데 :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쓰임.

<보기2>

ㄱ. A : 여보, 승우는 오늘도 야근이래요.
 B : 회사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대?
 ㄴ. A :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좋네.
 B : 기상 예보를 들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덥대.
 ㄷ. A : 너, 혜정이 노래 들은 적 있니?
 B : 응, 노래 진짜 잘하네.

- ① ㄱ의 '-대'는 '승우는 회사에서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
- ② ㄱ의 '-대'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군.
- ③ ㄴ의 '-대'는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군.
- ④ ㄷ의 '-데'는 과거 어느 때 직접 경험한 사실을 현재로 옮겨 와서 말할 때 쓰이군.
- ⑤ ㄴ의 '-대'는 '-다고 해'로, ㄷ의 '-데'는 '-더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군.

<MEMO>

<표현 일반>

15.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틀린 문장 | B: 고쳐야 하는 이유 | 고친 문장 |
|-------------------------|---|-------|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 피동 표현이 잘못됨. | ㉠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르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 ㉡ |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됨. | ㉢ |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 ㉣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 | 높임 표현이 잘못됨. | ㉤ |

- ① ㉠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 ②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 ③ ㉢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④ ㉣ :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
- ⑤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

<MEMO>

<능피주사>

16.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 ①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②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③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 ④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MEMO>

17. 다음은 잘못된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고쳐 쓴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표]

어법에 맞지 않는 이중 피동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표현들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연습 문제]

다음의 이중 피동 표현을 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으로 고쳐 쓰는 연습을 해 보자.

- ㉠ 그 일은 무척 힘들게 보여진다.⇒
- ㉡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차여졌다.⇒
- ㉢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 ㉣ 땅에 묻혀진 것은 해적이 남긴 보물이었다.⇒
- ㉤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진다.⇒

| | | 고쳐 쓴 결과 |
|---|---|----------------------------------|
| ① | | 그 일은 무척 힘들게 <u>보인다</u> . |
| ② | ㉡ |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u>채었다</u> . |
| ③ | ㉢ |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u>믿기지 않는다</u> . |
| ④ | ㉣ | 땅에 묻힌 것은 해적이 남긴 <u>보물이었다</u> . |
| ⑤ | ㉤ |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u>생각된다</u> . |

<MEMO>

18.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업 게시판>

[질문]

오늘 어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쓰려고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 라고 써야 할지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 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

‘사람을 물었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쓰지 피동문을 쓰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됩니다. ㉡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즉 ㉣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이 물린’ 상황보다는 ‘개’의 행위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 ① ② ㉠ ③ ㉡ ④ ㉢ ⑤ ㉣

<MEMO>

19.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 | A: 주동문 |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
| ㉠ | 동생이 숨는다. |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 ㉡ | 동생이 밥을 먹는다. |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 ㉢ | 실내 온도가 낮다. |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 ㉣ | 동생이 공을 친다. | 해당 사례 없음 |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 나는군.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접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MEMO>

20.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①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에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② ‘그가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에는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③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에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④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⑤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MEMO>

2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의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사동 표현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과 ‘-게 하다’에 의한 사동법이 있다. 이 중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은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 접미사인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서 파생된 사동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동 표현을 위해 파생된 사동사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행하게 하는 동작’인 사동사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① 철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갔다.

- ② 엄마는 늘 아이에게 제 가방을 들려 보내는구나.
- ③ 주변에 먹을 물이 전혀 없으니 얼음이라도 녹여 먹자.
- ④ 그는 책을 읽다 말고 중요한 사항을 여백에 앉히고 있었다.
- ⑤ 우리 마을에서도 예전부터 소와 돼지에게 사료를 먹이고 있었다.

<MEMO>

2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 된 것은? [3점]

<보 기>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MEMO>

(14강-15강)

<7c. 표기와 규정>

<L0>

<이/ 히>

- 1. 그녀는 나와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다(o,x)
- 2. 꼼꼼이(o,x), 겹겹히(o,x), 툼툼히(o,x)
- 3. 세간 하나를 번번히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다.(o,x)

<원형, 소리>

- 4.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듯이 그 일을 성공하자(o,x)
- 5. 막애(o,x), 오뚝이(o,x)

<노란양말모음 = 패티쉬>

- 6. 거북치(o,x), 녀녁치(o,x), 깨끗치(o,x)

<만큼, 대로, 뿐>

- 7. 할뿐이다 -> 띄어쓰기 해봐.
- 8. 너만큼, 할 만큼 -> 왜 하나는 붙이고 왜 하나는 띄어쓰니?

<본+보조와 띄어쓰기>

- 9.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이번 일은 내 힘으로 막아 내겠다.
- ② 나는 철수의 소식을 현주를 통해 전해 들었다.
- ③ 그는 부모님을 여윈 슬픔을 힘들게 이겨 냈다.
- ④ 설거지를 하다가 귀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 ⑤ 그녀는 어제 하루 내내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 ⑥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 ⑦ 나는 그 책을 거의 읽어 간다.
- ⑧ 친구들끼리 그 운동장에서 모여 놀았다.
- ⑨ 그 책 꼭 읽어는 봐.
- ⑩ 그 선생님을 꼭 찾아가 뵙고 싶다.
- ⑪ 내 친구는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

<열, 읊 = 나나모음>

- 1. (o,x), 실패물(o,x), 합격물(o,x), 성공물(o,x)
- 2. 쌍용(o,x)

< 5, 27항>

1.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1)

< 기 >

5항

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몽땅

㉕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제27항

㉖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 ① ‘살짝’, ‘듬뿍’은 5항의 (가)조항처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해.
- ② ‘법석’, ‘작두기’, ‘납작’은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면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해.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㉕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만사위, 홀이불’은 접두 파생어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군.
- ⑤ ‘물병’은 제 27항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어 적는군.

- 2. 쑥스럽다(o,x) , 짹짹하다(o,x)
- 3. 법석(o,x), 덩석(o,x)

<사이시옷 표기 규정>

1. <보기>를 참고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사이시옷 현상)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말이 합성된 말에서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때.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뒷울, 두레일, 덧잎, 베갯잇,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2. 두 음절로 된 다음 6개의 한자어에 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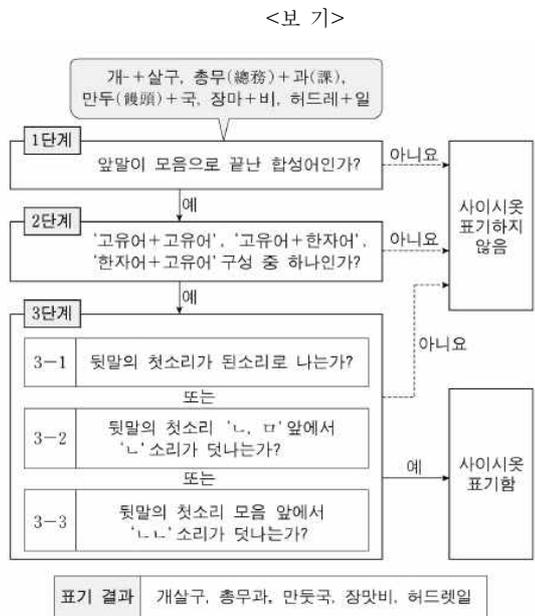
예 庫間(곳간), 車間(차간), 糞房(셋방), 數字(숫자), 退間(퇴간), 回數(횟수)

① ‘곶병’, ‘머릿방’, ‘제삿날’, ‘나룻배’, ‘넋가’ 등은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이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군.

- ② ‘전셋집’, ‘아랫마을’은 순우리말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면서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겠어.
- ③ ‘복엿국’, 양치말’은 우리말이 일부 포함된 합성어이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덧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④ ‘아랫니’, ‘예삿일’은 순우리말로만 된 합성어이면서 ‘ㄴㄴ’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군.
- ⑤ ‘치과’, ‘두레일’은 한자어로만 이루어졌으면서 곳간, 차간과 같은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군.

2.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햇님’의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 ‘햇님’이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3. 전세집(o,x), 전세방(o,x), 만두국(o,x),

< , 요>

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 는 ‘요’ 로 소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 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 는 ‘이요’ 로 적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 는 ‘요’ 로 적는다.

[표준 발음법]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 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보기 2>

-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입니다.
- 우리는 친구가 ㉡아니지요. 형제이지요.
- 우리는 친구가 ㉢아니오. 형제이오.

- ① ㉠의 ‘요’는 연결 어미이고, ㉢의 ‘요’는 종결 어미이다.
- ② ㉡에는 어간, 어미, 조사가 모두 쓰였다.
- ③ ㉠과 ㉢의 어간은 모두 ‘아니-’이다.
- ④ ㉢은 ㉠과 똑같이 발음할 수도 있다.
- ⑤ ㉢의 ‘오’는 종결 어미로 이를 ‘요’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기타>

- 1. 그는 그 일을 하지 안았습니다 -> 고쳐라
- 2. 암돼지(o,x),
- 3. 육개장(o,x) / 우표-편지
- 4. 다음을 띄어쓰기하시오.
 - (1) 축구경기에서삼대영으로지자우리반은숨소리가들릴만큼조용해졌다.
 - (2) 그가이곳을떠난지일주일일이되었다.
 - (3) 무엇부터해야할지생각하다시간만보내고말았다.
 - (4) 할수가없다.
 - (5) 그에게남은것은옷한벌과연필한자루뿐이었다.
 - (6) 어머니와나와단둘이있었는데

<L1>

<란/난 구분법>

- 1. 학습란(o,x) 2. 의견난(o,x) 3. 스포츠란(o,x)

<윗, 옷>

- 4. 윗층(o,x) 5. 옷돈(o,x) 5.5 윗도리(o,x)

<이, 히>

- 6. 어렵פות(o,x) 7. 샅샅히(o,x) 8. 깨끗히(o,x) 9. 고요히(o,x)
- 10. 깊숙이(o,x) 10.5 곱곱이(o,x) 10.7 가벼히(o,x)

<된소리>

- 11. 해쓱하다(o,x) 13. 법썩(o,x) 14. 싹뚝(o,x) 15. 짹짹하다(o,x)

<하지 - 완전 줄어드는 경우와 부분 줄어든 경우 / ㄹ표기>

- 16. 만듦(o,x) 17. 넉넉치(o,x) 18. 서슴지(o,x) 19. 거칠은(o,x) 20. 되물은(o,x) 21. 생각타 못해(o,x)

<사이시옷 표기>

- 21. 햇님(o,x) 22. 냇가(o,x), 23.아랫니(o,x) 24. 예사일(o,x)
- 25. 머리말(o,x), 인사말(o,x)

<띄어쓰기>

- 26. 먹어 본다.(o,x) 27. 먹어만 본다.(o,x) 28. 모여놀았다.(o,x)
- 28.5 키가 작은 형 / 작은형

<표음이나 표의냐>

- 29. 꿀약서니(o,x) 30. 들어나다(o,x) 31. 오뚜기(o,x)

<햇갈리는 표기>

- 32. 치루다(o,x) 33. 통채로(o,x)

<용례의 문제>

- 34. 분을 삭히다 (o,x) 35. 눈에 잘 띄다.(o,x) 36. 체에 받치다.(o,x)

<잘못된 표현들>

- 37. 선생님의 인기는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o,x)
- 38.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야 한다(o,x)

39.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 우리 반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L2>

1. <보기>를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나, 너’ 음을 인정한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 ①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는 10항의 붙임3과 연관이 있어.
- ② 익명, 여자, 연세는 10항의 조항과 관련이 있어.
- ③ 냥(兩) 냥쫙(兩-) 년(年) (몇 년)은 10항의 다만과 관련된 조항으로 의존명사겠군.
- ④ 당뇨는 10항 붙임 1에 해당하는군.
- ⑤ 신여성, 공염불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여성과 염불이라는 단어가 왔으니, 붙임 1에 해당해.
- ⑥ 연 3회도 년 3회로 고치는 것이 맞겠군.

2.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3.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의 ‘거리’는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군.
- ② ㄱ의 ‘좁히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 보기1>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의 경우 ‘꽃’, ‘꽃이’, ‘꽃나무’를 소리대로 적으면 [꼴], [꼬치], [꼴나무]가 되는데, 이와 같이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꽃’처럼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 < 보기 2> —
- ㄱ. 거리를 좁히다.
 - ㄴ. 산 너머로 넘어 갔다.
 - ㄷ. 읽지 않고는 읽기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 ③ ㄴ의 ‘너머’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군.
 ④ ㄴ의 ‘넘어’는 독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표기이군.
 ⑤ ㄷ의 ‘읽-’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4. <보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3점]

— < 보기 기> —
 <한글 맞춤법>
 제35항 모음 ‘ㄱ, ㄷ’로 끝난 어간에 ‘-아 / -어, -았- / -었-’이 어울려 ‘가 / 거, 갔 / 갔’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붙임 1] ‘놓아’가 ‘봐’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붙임 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개, 갯’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ㅋ’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제37항 ‘ㄱ, ㅋ, ㄱ, ㄷ, -’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개, कै, 기, 기, -’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 ① ‘놓이어’를 ‘놓여’로 쓴 것은 제35항 [붙임1]에 따른 것이다.
- ② ‘꾸었다’를 ‘꿨다’로 쓴 것은 제35항에 따른 것이다.
- ③ ‘누이니’를 ‘뉘니’로 쓴 것은 제37항에 따른 것이다.
- ④ ‘참되어’를 ‘참दै’로 쓴 것은 제35항 [붙임2]에 따른 것이다.
- ⑤ ‘치이었다’를 ‘치었다’로 쓴 것은 제36항에 따른 것이다.

<표기법 - 띄어쓰기>

5.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 >

【 질문 】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 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 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 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 ()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6. <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뚝이(×) → 오뚝이(○), 쌍둥이(×) → 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그을 표준어로 삼고, 그을 버림.)

| | | |
|--------|----|--------|
| 부조(扶助) | 부주 | ~든, ~금 |
| 사둔(査頓) | 사둔 | 발~, 안~ |
| 삼촌(三寸) | 삼촌 | 외~, 처~ |

<보기

2>

-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 ‘깡충깡충’을 ‘깡총깡총’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7.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1점]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 ②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족의 건강이야.
-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

(16-17강)

<16 . 사전 활용하기>

1.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것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는]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 시멘트가 굳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 허리가 굳다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 굳은 결심 / 성을 굳게 지키다

반의어 ㉠㉢ ㉡ ㉣

녹다 [녹아, 녹으니, 녹는]

㉠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 얼음이 녹다 / 눈이 녹다
 ㉢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 옛이 녹다

㉡ [...에]

㉠ 결정체(結晶體)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 소금이 물에 녹다
 ㉢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 우리 정서에 녹아 든 외국 문화

반의어 ㉠㉣ ㉡ ㉢

- ① '굳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와 '옛이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 ③ '굳다II'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단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녹다 ㉡ ㉢'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 ㉡ ㉢'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도 다른 문장성분을 필요로 한다.

<Memo>

2.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2.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 「조사」(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담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유의어 하고, ㉨

형태 정보 받침 없는 체언 뒤에는 '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Memo>

3.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 ㉡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Memo>

4.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리다1 ㉠

- ① '갈다1 ㉠'의 피동사.
 ㉠ 밧돌에 콩이 갈리다.
- ② '갈다1 ㉡'의 피동사.
 ㉡ 버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2 ㉢ '갈다2'의 피동사.
 ㉢ 눈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1'을 보니, '갈다1'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1'과 '갈-리다2'를 보니, '갈다1'과 '갈다2'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1'을 보니, '갈-리다1'은 '갈다1'에 피동 접미사가 걸

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1 ㉠'을 고려할 때, '갈다1 ㉠'의 용례로 '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2'를 고려할 때, '갈다2'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Memo>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1 [바라, 바라니]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여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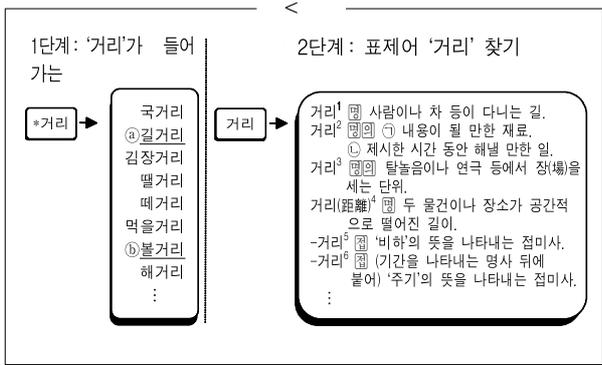
바래다1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벌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벌에 바래다

- ① 바라다1과 바래다1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1과 바래다1㉢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1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1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1㉢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Memo>

1. [CD-ROM] 국어 사전을 사용하여 ㉠,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보기>의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2.2점]



- ① ㉑의 '거리'는 거리¹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㉑는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 ② ㉑의 '거리'는 '국거리, 김장거리, 빨거리, 먹을거리'와 같이 거리²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다.
- ③ '떼거리'는 '무리'를 뜻하는 '떼'에 -거리⁵가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④ "과실이 해거리로 열린다."의 '해거리'는 '해'에 거리²이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 ⑤ 1단계에서 검색된 단어는 단일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Memo>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㉒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㉓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㉔

㉑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㉒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㉓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㉑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 ㉑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 ㉑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Memo>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더-하다

㉑ ㉑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㉒ 동사

㉑ ㉑ 【…을 (…과)】 (('…과' 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 물에 섯을 더하면 다섯이다. /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 /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㉒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㉑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㉓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㉑

덜-하다 ㉔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 짜게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만약에 ㉑

- ① ㉑에 들어갈 말은 '행용사'이다.
- ② ㉑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㉑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㉑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㉑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㉒ ㉑'이다.

<Memo>

<Memo>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간감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 내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다.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음원이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반면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소리는 오른쪽 귀에 먼저 도착하므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난다. 고주파의 경우 소리가 진행하다가 머리에 막혀 왼쪽 귀에 잘 도달하지 않는 데 비해, 저주파의 경우 머리를 넘어 왼쪽 귀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이다.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1,000 Hz 이상인 고음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데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소리는 귓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같은 소리라도 소리가 귀에 도달하는 방향에 따라 상호 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의 차이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의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는 간섭에 의해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작아지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음원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 ~㉠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청취(聽取)하면
 - ② ㉡ : 치중(置重)하면
 - ③ ㉢ : 파악(把握)하는
 - ④ ㉣ : 발생(發生)한다
 - ⑤ ㉤ : 감소(減少)하고

<Memo>

<b. 자체, 문맥>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운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1. ㉠과 관련하여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A) 시작하자, 그는 채로 장구를 (B) 시작했다.

- | | |
|-------|------|
| A | B |
| ① 뜯기 | 치기 |
| ② 치기 | 켜기 |
| ③ 타기 | 통기기 |
| ④ 켜기 | 두드리기 |
| ⑤ 통기기 | 타기 |

<Memo>

2006학년도 수능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새로운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얻은 것은 1892년의 일이었다. 1876년 오토가 발명한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당시에 무척 떨어졌으며, 널리 사용된 증기 기관의 효율 역시 10%에 불과했고, 가동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디젤의 목표는 고효율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높은 압축 비율로 연료

- ④ [빛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한다.
[지난 50년간 변천해 온 여성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 ⑤ [우리 선조들은 남녀 간에 식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밝아서 멀리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나마 분별이 가능했다. _

2. **낱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잘못 해결한 것은?**

- ① [다리다: 약은 정성껏 다려야 한다.
[달이다: 내일 입을 옷을 달이고 있었어.
- ② [안치다: 이제 밥만 안치면 되겠구나.
[앉히다: 아이들을 어디에 앉히면 좋겠니?
- ③ [영기다: 그릇에 기름이 영기어 있군.
[영키다: 여행 계획이 영키어 버렸군.
- ④ [이따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조금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마.
- ⑤ [저리다: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들구나.
[절이다: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배웠어.

<d. >

()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일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 -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체이다 '멋' 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끄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 라 하고 '일물(一物)' 이라 하고 '일심(一心)' 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를 밤엔 '멋' 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

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 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족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덩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1.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Memo>

2007학년도 수능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 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 부터 불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

,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답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오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㉔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었고 탈기까지 하련만 그는 ㉕ 벨 생 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뻥뻥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벨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사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돌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㉖ 졸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뒀을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㉗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뻥뻥 보고 싶는데 빈 지게로 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이 짝이 없는 노릇이였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테 얼치고 덜치더라고 율해는 고나마 흉작이였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 [A] 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㉘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빗장이 들은 우 - 물려들 거니깐.

응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철이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였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였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㉙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뒀을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였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㉚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경이는 체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립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응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지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아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 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논만 내놓고 수건인지 뭇지 형질이 가리였다. 붓집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뺨소니를 ㉛ 놓는다.

그러자 응철이가 날째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계를 내려조겼다. 어이쿠쿠, 쿠 -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㉜ 무서운 침묵이였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 환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B]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율음이 복받친다. 붓집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 하고 데통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㉝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 만무방 -

* 장리: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벌리.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색초: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2.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07) [1점] _

- ① a: 알아주는 ② b: 태우며
- ③ c: 갓을 ④ d: 거칠게
- ⑤ e: 친다

<Memo>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①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②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③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형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④ 이루어진 것이다. ①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2 + 3 = 5’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2 + 3 = 5’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형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⑥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 ①~③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a: 천명(闡明)되기도 ② b: 습득(習得)한
- ③ c: 의거(依據)하여 ④ d: 형성(形成)된
- ⑤ e: 별개(別個)의

<Memo>

<e. 판단>

1976년에 ① 미국의 수학자 아펠(K. Appel)과 하켄(W. Haken)은 지도(地圖)의 채색과 관련된 ‘사색(四色)문제’를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색문제는 한 세기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오던 문제로. 어떠한 지도라도 네 가지 색만 있으면 지도상의 모든 지역(국가, 도, 시, 군 등)을 ②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이다. .

1. ①의 용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된다.
 - ② 경제학과 경영학은 엄연히 구별되는 학문이다.
 - ③ 토론 과정에서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한다.
 - ④ 비전문가에게는 갈대와 억새의 구별이 쉽지 않다.
 - ⑤ /ㅎ/와 /ㄱ/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Memo>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①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1. 을 ‘금성(金星)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셋 별’ 처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 잘못된 것은?
- ① (流星)은 빛을 내며 떨어진다. → 별뿔별
 - ② 행성(行星)은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 → 잔별
 - ③ 혜성(彗星)은 긴 꼬리를 끌면서 돈다. → 꼬리별
 - ④ 항성(恒星)은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 붙박이별
 - ⑤ 북극성(北極星)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된다. → 길잡이별

<Memo>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열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적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

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①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출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밝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②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프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운애에게 말하고 있다. 운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③ _____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끝,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끝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텅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3. ③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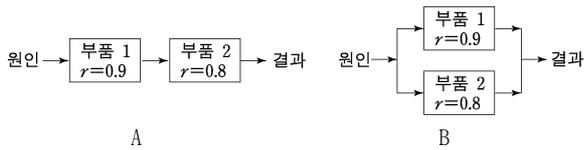
<
기>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 불타는
노을.

- ①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 ③ 분홍색 메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 ④ 바람 소리도 잡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Memo>

장비의 '신뢰도'란 ㉠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불쑥 끼어들었다.

- ③ 민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Memo>